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기독교 문화관 이야기

- 박준용 / 2003. 7. 16 -

문화평론가, 청년사역자, 청년문화발전소ADzero대표, '주간기독교' 연극칼럼리스트

생전 처음으로 코끼리를 접한 어느 눈 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서는 돌아와서 다른 장님들에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기둥 같은 동물이야'라고 말이죠. 실제로 장님은 코끼리의 한 쪽 다리만을 만져보고서는 그런 웃지 못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는 말입니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시각이 만약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 한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중문화를 이해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는 문화를 요소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실제로 문화를 접할 때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략 80년대를 전후로 한국교회에는 소위 '반 뉴에이지 문화관'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주로 음악과 영화 파트에서 뉴 에이지 사상에 물든 작가의 작품들, 예를 들어 조지 윈스턴이나 야니, 씨크릿 가든 등의 음반들이라든가 E.T, 사랑과 영혼, 사인 등의 영화들이 무의식중에 일반 대중에게 뉴 에이지적인 악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UFO나 외계인, 환생이나 윤회, 전생 그리고 기독교적 네러티브의 신비주의적 차용 또는 각종 심볼이나 문양 등 소위 뉴 에이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일체의 대중문화는 그 자체로 배격해야 하는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타락한 현대문화를 상징하는 간음과 불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력 등등의 소위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내포된 문화나 예술작품들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기독사회단체들의 관점 역시 앞서의 요소주의적인 반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주의적 문화관의 문제는 작품의 실질적인 해악에 앞서, 이렇게 어떤 요소를 통해 전체를 판단하고 단정지어 버리는 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성에 있습니다. 요소주의적 시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자신과 다른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예를 들어 그들이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하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일부 부정적인 요소만을 근거로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 전체를 단정지어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려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간음과 불륜, 성적 방종과 동성애, 근친상간 그리고 폭력과 섹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성경을 반대하거나 금지하자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거나 긍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의 깊은 죄악과 타락 그리고 절망과 소외를 드러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땅

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 속에 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스캔들의 주역이었던 세리와 창녀 그리고 문둥병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대중문화와 타인의 삶 속에 단지 어떤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뉴 에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부정적인 소재들을 이용해서 그런 악한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품들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의도의 진위는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요소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소에 대한 선입견과 거부감을 버리고 문화를 능동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마치 크리스천으로서 타인을 평가하고 이해할 때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배려와 조심성, 그 이상의 세심함으로 대중문화와 예술작품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